

## 영암군,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대장정

11/1~16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 등서 '집은 집 : 달빛 아래 한옥' 주제 유명 작가 참여 주제·특별 전시로 기품 있고 맛깔난 한옥 활용법 제시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11/1~16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 주최, 국토교통부와 (사)한옥건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집은 집 : 달빛 아래 한옥'이다.

'한옥은 집'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깃든 한옥의 가치와 활용법을 비엔날레에서 제시한다.

집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비엔날레는 지역 작가·예술가 작품 전시, 명사 토크콘서트, 국제학술토론회, 한옥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한옥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흐름'과 '관계'의 미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건축을 넘어

우리 자산인 한옥을 더 기품 있고 맛깔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장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한옥의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로 제시하는 실험 무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는 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장정에 들어간다.

먼저, 비엔날레 주제를 표현한 주제 전시에서는 한옥이 거주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정신, 미학을 담은 문화 상징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전시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등 25명 작가의 70여 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제1관 '한옥에 들다'에서 제9관 '한옥, 온기를 품다'까지 관람하면 한옥에서 생활한 한국인과 공동체의 감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구림한옥스테이에서 열리는 특별전시는 '유니크한 한옥(Flowing Hanok)'을 주제로 구림 한옥스테이에서 국내 유명 작가들이 각기 다른 주제와 재료, 감성으로 한옥과 어울리는 작품을 제시한다.

1동 소안 갤러리 공예 소장품, 2동 블랙퍼스트를 위한 대나무 예술작품, 3동과 구림재는 자가 공예 및 조달청 공예제품, 4동 소이갤러리 영암의 원석, 5동 크리스찬 디올 협업작가 김현주 한지꽃 작품 전시로 구성돼 있다.

국제학술포럼은 2일 정성갑 건축가의 토크콘서트 '한옥의 기쁨과 슬픔', 15일 국내·외 석학들의 '담장너머 : 한옥과 인문학의 만남'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연계 행사로 '맛·맛·흥으로 보는 한옥스테이' 이벤트, 영암군립 하정옹미술관의 '한국미술을 빛낸 남도



화가들' 특별 기념전시·체험, 영암도기 박물관의 '차도구와 차문화 이야기' 특별 기념전시·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비엔날레는 한옥의 감성을 일상으로 당기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자리 잡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고전의 감동 담은 발레 '돈키호테' 무대에 올린다  
M발레단, 세르반테스 명작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구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세계적인 고전 명작 발레 '돈키호테'를 지역 무대에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연을 선사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5 우수 예술단체 유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M발레단과 함께 클래식 발레 '돈키호테'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데 라 만치'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루드비히 민쿠스의 음악, 마리오스 프리파의 안무를 바탕으로 탄생한 세계적인 명작이다.

M발레단은 기존 3막 구성을 2막으로 재구성해 보다 역동적이고 유머러스한 전개로 관객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과장된 몽상가의 전통적 이미지를 넘어 젊은 연인의 사랑을 지지하는 '정의로운 로맨티스트'로 새롭게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 캐릭터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오늘날의 새로운 영웅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M발레단은 2015년 창단 이후 창작 발레와 클래식 발레의 재해석을 통해 한국



발레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며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오월바람' 등 한국적 서사를 담은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돈키호테' 역시 한국 발레의 예술적 저변 확대와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세계적인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직접 체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주시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이명열 기자

## 담양군문화재단 2025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 '대나무놀이X완전정복' 개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일대... '대나무 놀이터'로의 초대!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일대에서 전 세대를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축제, <2025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대나무놀이X완전정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엔 '함께 만든 아지트', 올해는 '모두의 놀이터'

지난해 열린 <2024 담양대나무아지트 축제>는 가족과 예술가가 협업하여 대나무 아지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동제작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많은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축제로 한층 확장됐다. 창작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험과 놀이,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축제로 확장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

우러지는 열린 문화놀이터로 발전시켰다.

◆대나무로 즐기는 놀이, 공예, 체험, 이벤트까지!

축제 기간 동안 대나무를 활용한 놀이, 체험, 공예,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놀이형 체험 콘텐츠인 ▲대나무놀이터(대대롱굴리기, 말타기 등)를 비롯해, 실생활에 유용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대나무공작소(주방용품 등)는 기본형부터 프리미엄(고급) 체험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리미엄(고급) 체험에서는 지역 대나무 공예 명인들이 직접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깊이 있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다.

도전과 협동을 유도하는 ▲대나무챌린지(대나무 불 릴레이, 출발 경기 등)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대나무슈터즈(활쏘기 대회) ▲프리미엄 공예 체험 뽕기 이벤트 ▲공연 및 부대 행사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자 대상 특별 혜택도 마련 이번 축제는 현장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축제로 운영되지만, 가족 단위 사전신청자에 한해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신청을 완료한 가족에게는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무료 입장권 ▲야외활동을 위한 피크닉 돗자리 ▲대나무챌린지 참여 우선권 등 소정의 기념품과 혜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



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사업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담양대나무아지트축제를 통해 '대나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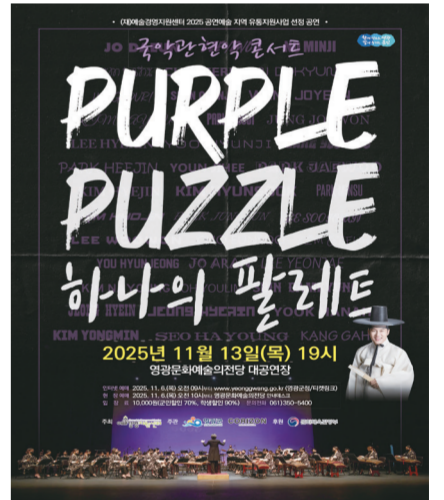
담양/이종욱 기자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국악관현악 <하나의 팔레트> 공연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11월 13일(목)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국악관현악단 코리아즌의 'PURPLE PUZZLE:하나의 팔레트'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관현악만의 클래식함과 현대적 감각을 더해 장르에 편향되지 않고 트렌드를 아우르는 코리아즌의 레퍼토리 공연으로, 각기 다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나라는 색과 '타인'의 색들이 모인 팔레트로 관현악이 주는 거대한 한쪽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등의 선율악기가 '붓'이 되어 음악의 그림을 그려주는 '아리랑 환상곡', 3악장으로 구성되어 굿거리, 동살푸리, 휘모리 등 전통 장단의 음악적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축제' 등과 더불어 자(지웃)밴드의 게임 음악, OST, K-POP 등 대중에게 익



숙한 곡을 편곡한 메들리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또한, 장타령, 사랑가, 고장난 벽시계 등을 국악인 남상일의 협연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진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디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